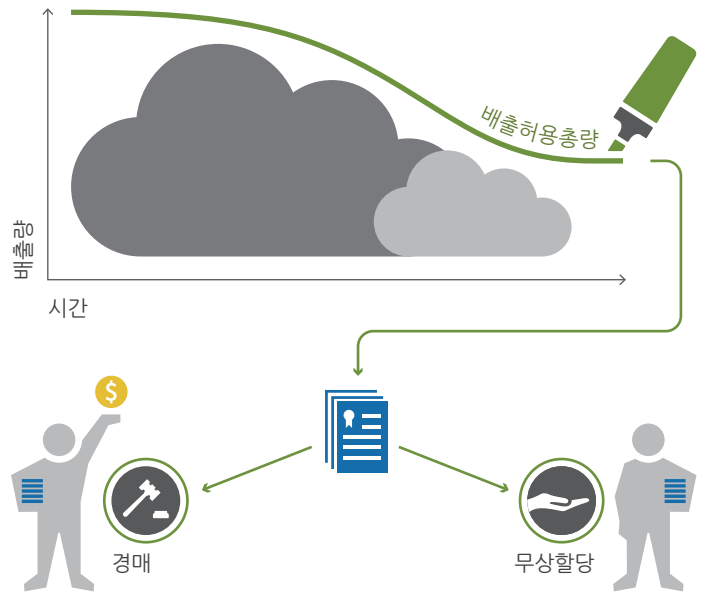


탄소배출권 할당방식

배출권 거래제(ETS)는 온실가스(GHG) 배출량 감축을 위한 시장 기반 수단이다. 이 제도는 '총량거래방식 (Cap and Trade)'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정부는 ETS에 참여하는 경제 부문에 대해 배출 상한(cap)을 설정한다. ETS 대상기업은 배출량 1톤당 하나의 배출권을 부여 받게 되며, 배출권을 양도하거나 구매할 수 있고 다른 기업과 거래할 수 있다. 정부의 탄소배출권 할당방식은 ETS의 기본 설계 요소이다.

할당이 중요한 이유

ETS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환경목표는 배출권의 총량(cap)에 의해 결정된다. ETS 대상 주체(주로 기업 또는 개별 시설)에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에 따라 목표 달성을 위한 주체간 노력 분담 방식이 정해진다.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법에는 기본적으로 무상할당과 경매를 통한 유상할당의 두 가지가 있다. 배출권은 화폐적 가치가 있으므로 배출권 할당 시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경매와 무상할당의 장단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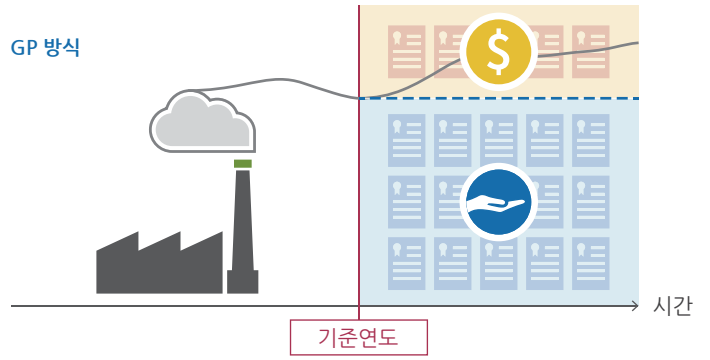
경매는 가장 필요로 하는 조직에 배출권을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여겨진다. 또한 탄소 가격을 공개하고 거래를 장려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고 조기 행동에 대해 보상하며 활발한 탄소 시장을 촉진한다(경매 및 ETS 수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CAP ETS 브리프 5호 참조). 하지만 무상할당 역시 나름의 타당성이 있으며, 특히 ETS의 시행 초기에 그러하다.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함으로써 ETS 대상 주체는 기존의 탄소 집약적인

인프라 및 공정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ETS로의 원활한 전환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무상할당은 기업의 경쟁력 상실 가능성 차단과 탄소 누출의 위험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이론상으로 보면, 기업이 생산 설비와 투자를 기후 규제가 덜 엄격한 지역으로 이동함으로써 배출량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기본적으로 존재한다. 무상할당은 이러한 탄소누출 업종의 온실가스 저감비용을 보상함으로써 이들 부문이 계속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ETS 대상 주체가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받더라도 이들이 저탄소 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여전히 존재한다. 배출량을 줄여 여분의 배출권이 발생하면 이를 판매할 수 있지만, 배출량이 늘어나게 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센티브의 강도는 무상할당 방식에 의해서 결정된다(다음 페이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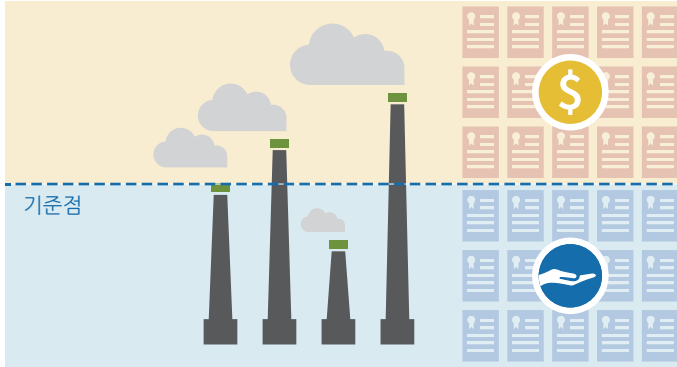


다양한 무상할당 방식

과거배출량 기반 할당(GP, Grandparenting) - 과거 특정 기간 동안 기업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무상할당량을 결정한다. GP 방식은 자료 요구량이 그다지 많지 않아 비교적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본 방식은 초기에는 배출권 거래의 필요성을 낮출 수 있으며, 배출량 감축 시 '과거 배출량 기준선'을 낮춤으로써 배출권 할당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배출량 감축에 투자하는 기업에 오히려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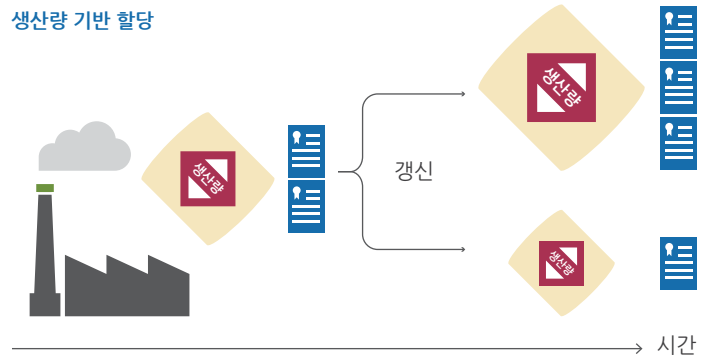
BM 방식



벤치마크 할당(BM, Benchmark) - 제품 또는 특정 부문 전체의 배출 강도에 따라 정해진 배출성과 기준에 준하여 기업에 대한 무상할당량을 결정한다. BM 방식은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고 초기 행동에 대해 보상한다. 하지만 BM 방식은 고품질 데이터와 (복잡하기 마련인) 산업 공정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ETS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BM 방식은 특정 제품 또는 부문에 대해 일정한 성과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다(고정 부문 BM). 평균 성과 수준, 모범 사례 수준 또는 이 둘 사이의 값(예: 상위 10% 우수 업체의 평균) 등으로 벤치마크를 설정할 수 있다.

또 다른 BM 방식은 기업 또는 시설의 실제 생산량에 따라 할당량을 갱신하는 방식이다(생산량 기준 할당). 이 방식은 취약 기업의 탄소누출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하지만, 해당 기업의 탄소 가격 인센티브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



탄소배출권 할당 방식은 ETS 관할 구역과 부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경매는 주로 전력 부문에 사용되는 반면, 무상할당은 산업 부문에 적용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ETS 시행초기 단계에서는 경매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시스템이 성숙될수록 경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활발한 탄소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경매가 중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GP 방식	BM 방식
경매		스위스, 중국 시범지구, EU ETS**, 온타리오, 캘리포니아, 퀘벡
경매 없음	도쿄, 사이타마	대한민국*, 뉴질랜드

* 한국 ETS는 시멘트, 정유 및 국내 항공에는 BM 방식을 적용하고 그 이외의 부문에 대해서는 GP 방식을 적용한다.
 ** EU ETS는 현재 단계에서는 무상할당 부문에 BM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 이전 단계에서는 주로 GP 방식을 적용했다.
 현재 RGGI는 유일하게 무상할당을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거의 모든 배출권이 경매를 통해 할당된다.

ICAP(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 정보: ICAP(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은 배출권 거래의 모범 사례에 중점을 두는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의 국제 포럼입니다. ICAP의 세 가지 중심축은 기술적 대화, 지식 공유, 역량 강화입니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ICAP 웹 사이트](#)를 방문하여 [ICAP 지도](#)를 살펴보거나 트위터([@icapsecretariat](#))에서 ICAP를 팔로우해 주시기 바랍니다.